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인친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라:스펙 제대군인 2025 January Vol.227

라:스펙 제대군인

2025 January Vol.227

Re play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정부 지원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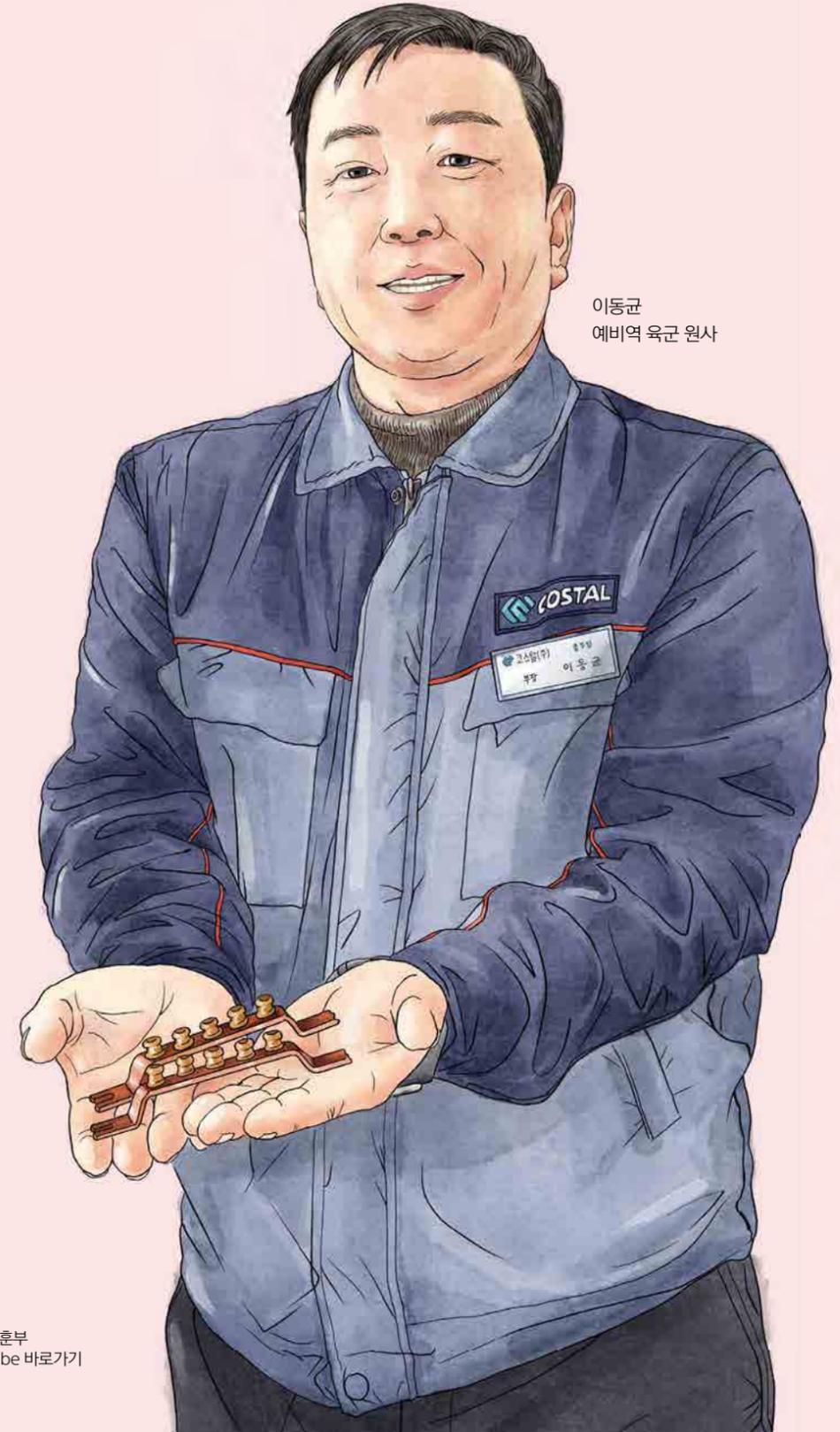
Re connect

술선수범·군성의 군인정신으로
인생 2막의 완벽한 문을 열다

Re new

제대군인의 꿈과 미래를 여는
국가기술자격 A to Z

이동균
예비역 육군 원사



QR코드를 통해 라: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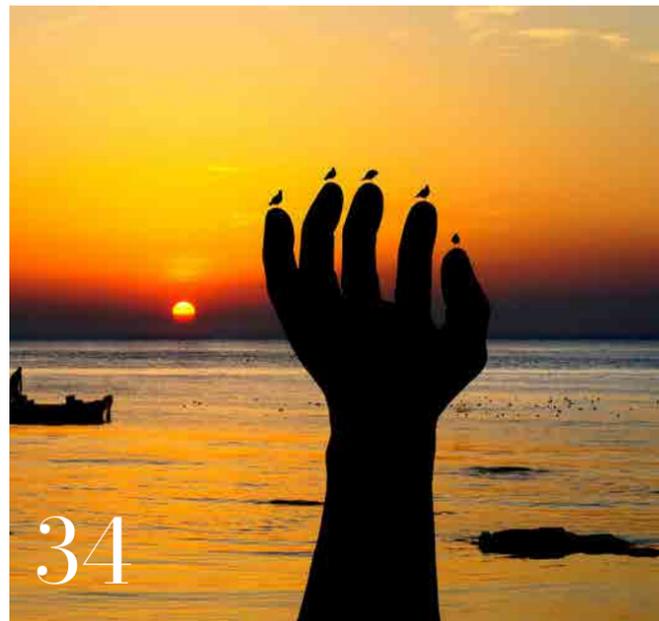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Contents



리:스펙 제대군인

2025 January Vol.227



01

통권 227호

발행일 2025년 1월 6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www.facebook.com/mpvakorea



www.youtube.com/user/mpvakorea



www.instagram.com/bohun_story



x.com/hun2day



blog.naver.com/mpvalove

Re play

- 04 **신년사**
건강 행복 기원
- 06 **돌아본 2024년**
2024년 국가보훈부의 의미 있는 발걸음
- 10 **시작하는 2025년**
2025년 제대군인 지원 정책
- 14 **커리어 맵**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정부 지원 예산

Re connect

- 16 **인사이드 스토리**
솔선수범·근성의 군인정신으로 인생 2막의 완벽한 문을 열다
이동균 예비역 육군 원사
- 20 **위대한 전환**
내 머릿속에 물음표는 언제든 느낌표로 바뀔 수 있다!
송준석 예비역 육군 소령
- 24 **금빛 상담소**
새로운 한 해의 시작, 방향성을 설정하라!
정지하(룩말) 작가
- 26 **지식 산책**
대한매일신보와 베델 선생
- 28 **미디어 로그**
콘텐츠를 읽어 주는 이야기꾼
전기수 & 변사와 성우

Re new

- 32 **전문가 칼럼**
2025년, 주목해야 할 IT 트렌드 3가지
이임복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 34 **뜻있는 여정**
새해의 빛을 품은 동해의 끝자락, 포항
- 38 **스페셜 리스트**
제대군인의 꿈과 미래를 여는 국가기술자격 A to Z
- 42 **독자 광장**
나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킬 책
한 달에 한 가지, 지구 사랑 실천 / 독자퀴즈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대군인 여러분,

그리고
리:스펙 제대군인
애독자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복이 더욱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군복을 입고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셨던 제대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국토수호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군 전역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의
사회적 존중과 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전직 지원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개인별 맞춤형 전직 지원체계를 구현하였습니다.

구직활동 중인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 지원금을 인상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기업에 우대 지원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청년
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7,3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군 장병의 밥값을 국민들께서 대신 계산하는 등 많은 미담이 기사화되었고,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성숙한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나라를 지키는 보람된 일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대군인 정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복무 기간 중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가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제대군인의 특성을 세심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대군인전직지원시스템(V-net)을 고도화하고, 전직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제대군인의 명예로운 헌신에 걸맞은 지원 정책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 제복근무자에 대해 국민들께서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제대군인 주간 등을 지속 추진하여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 문화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제대군인 여러분이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여시기를 희망하며,
여러분께서도 보훈 가족으로서 보훈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2025년 새해를 맞아 제대군인과 애독자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 1. 6.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H A P P Y N E W Y E A R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을 위한

2024년 국가보훈부의 의미 있는 발걸음

2024년 국가보훈부는 군 전역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을 위해 제대군인의 사회적 존중과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및 범부처 협업을 통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제도 마련,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현하는 등 모두의 보훈을 기치로 제복군무자에 대한 존중문화를 통해 튼튼한 국방을 뒷받침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로 질적 대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제대군인 지원 추진 성과

병역의무 이행 사회적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한 의무복무자 지원방안 마련

*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신설, 취·창업 지원 근거 마련, 근무경력 반영 의무화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7. 16.)

*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협업

제대군인확인서 원스톱 온라인 민원서비스 시행(5. 2.~)

* 직접 방문(취업, 안장 등 적시 제공 곤란) ⇒ 방문 및 온라인 발급(편의성 제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지원 부처 간 협업

* 청년 의무복무 장병 청약 가점(혜택) 부여(국토교통부)

* 군 복무 학점 인정제(교육부·국방부)·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보건복지부) 확대

제대군인 전직지원 서비스 개선을 통한 취·창업 강화

수출 부진, 금리 인상, 소비와 투자 둔화 등 경기침체 여건 극복

* 제대군인 취·창업 지원 목표 6,975명, 실적 7,078명(101.5% / 11월 말 기준)

2024년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개최(9. 10.)

* 취업 98개 기업·기관, 창업 9개 기업, 제대군인 등 5천여 명 참가, 취업 65명



HEROS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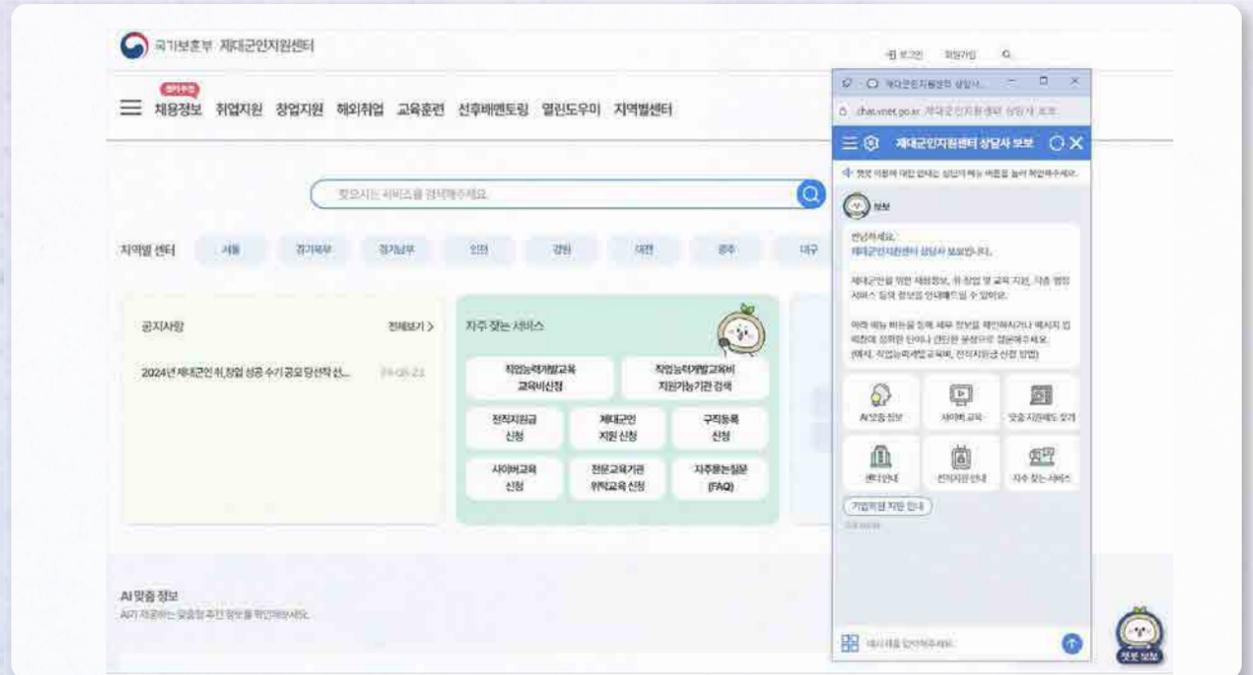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27년까지)

* 장기복무: ('23년) 70만 원 → ('24년) 77만 원 → ('25년) 81만 원 → ('27년) 99만 원

* 중기복무: ('23년) 50만 원 → ('24년) 55만 원 → ('25년) 58만 원 → ('27년) 99만 원

AI 지능형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개인 맞춤형 사회복귀 서비스

* 24시간 365일 챗봇을 통한 상담 제공



제대군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성공적인 사회 복귀 기반 조성

‘1사 1제대군인 고용’ 사업 및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확보

* 제대군인 미채용기업 선정(4,500개)·협력, 223개 기업 285명 고용(10월 말 기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활성화

* 2024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20개 기업 신규 인증(누계 95개 기업)

* 관세조사 유예, 여신지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일자리 트렌드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 지원으로 취업역량 강화

* AI 등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전환) 과정 150여 개 및 스마트폰 과정 30여 개 신설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47개 과정(인테리어, 타일 기능사, 드론, 소방안전 등)

보훈부-국방부 간 제대군인 권익증진 및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업

* 전역지원플랫폼(국방부)-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보훈부) 연동 추진, 사용자 편의 제고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기관 우대지원제도 발굴 및 지원방안 협력



영웅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감사문화 확산

제복근무자를 존경·예우하는 대국민
감사캠페인 연중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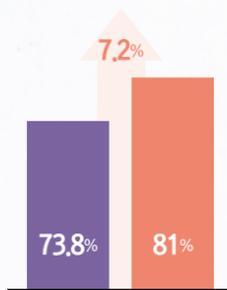
* '또 하나의 국가대표' 이미지 브랜딩 및
공익광고 제작·송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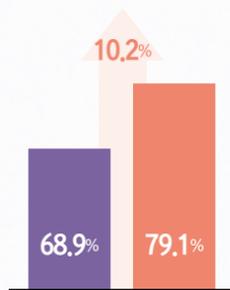
제복근무자에 대한 국민 인식 긍정적 변화

■ '24. 6월 ■ '24. 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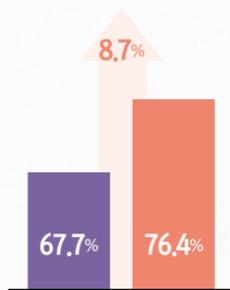
제복근무자
국가기여도



제복근무자
존경도



제복근무자
신뢰도



제대군인의 헌신에 감사, 국민과 함께 응원하는 제대군인주간 운영

* 현장 세리머니(10. 8.) 및 전시·응원·체험·홍보존 운영(10. 8.~10. 9.) 등



국민적 공감과 예우를 다하는 참전기념행사 구현

* 국민과 함께 서해수호 55영웅 기억(서해수호 유족의 편지 낭독, 55용사 국민롤콜)



* 대구에서 6·25전쟁 기념행사 최초 개최, 지방 거주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자유·평화의 고귀한 가치 전달

맞혀지는 호국영웅이 없도록 국민이 즐겨 찾는 장소에 6·25전쟁영웅 히어로드 조형물 설치로
일상생활형 보훈문화 조성

* 완료(7개소) : 문경, 인천, 파주, 창녕, 부산, 충주, 춘천 / 진행(3개소) : 상주, 칠곡, 오산

월남전 참전 60주년 계기 참전유공자에게 제복 증정, 국민적 존경심과 감사 표명



朝鮮日報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A02면 투데이

美 '참전용사의 날'엔 뉴욕 한복판서 퍼레이드... 평소에도 '제복을 입은 사람' 특별 대우

(Men in Uniform: MIU)

의료·문화생활 비용도 큰 폭 하락

지난 11일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퍼레이드는 5년 만에 열리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행진으로 가득 찼다. 상경수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거나 얼굴에 주름이 가득한 참전 용사였다. 미국에서 매년 11월 11일은 어들을 기억하는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이다. 이날은 미국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공휴일 중 하나로, 뉴욕시는 맨해튼에서 관중객들로 가장 북적이는 이 도로를 아예 차단하고 참전 용사들을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를 연다. 각각 학교에서도 어들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수업일 하지 않는다. 덕분에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퍼레이드 도중 군복 입은 어들에게 경례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날 뉴욕뿐 아니라 버지니아 열린 워싱턴에서 대통령도 '무명용사의 모'에 연설했다. 시카고와 시애틀 등에서도 기념식을 열었다. 사람들은 제복 입은 참전 용사들을 마주할 때마다 '당신의 봉사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건네기도 한다. 미국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Men in Uniform: MIU)'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히 군복 입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 그치지 않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어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담백하다. 참전 용사에 대한 미국인들의 예우는 말하상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할 때면 경기 전이나 쉬는 시간에 참전 용사들이 경기장에 나와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공항에서도 시민들은 보통 참전 용사를 마주치면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다가와 감사편지를 건넬 때도 많다. 참전 용사들은 마분부 산하 의료 시스템을 통해 각종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미국 내 유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입장할 때도 무료로 입장하거나 큰 폭의 할인을 받는다.

뉴욕=윤주현 특파원

빈틈없이 촘촘한 국가보훈부의

2025년 제대군인 지원 정책



국가보훈부는 2025년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제대군인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 제대군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장기적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제대군인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수요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촘촘한 전직지원체계를 구현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025년 제대군인 지원정책 방향

정책추진 방향

- 국민통합과 국가책임 실현에 중점,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
- 참전영웅·제대군인, 제복군무자 감사와 존중의 사회문화 조성
- 미래 제대군인 정책 비전 수립·정립

정책추진 중점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기반 강화
군경력 인정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각지대 해소
제대군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예우 확대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개선 및 취·창업 강화
제대군인 지원센터 조직체계 개선 및 운영 강화
부처 협업 등을 통한 전직지원 서비스 개선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
제대군인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강화
제대군인 대학교육비 지원 확대를 통한 취업률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예우·문화 조성
제복군무자 감사문화 확산
국민과 함께하는 참전기념행사
6·25전쟁영웅 홍보·선양
국군장병 등 위험직무 종사자 위문 및 희생자 위로·격려
대국민 신뢰받는 재향군인회로 혁신 지원
보훈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대군인 정책 종합계획 및 미래 비전 수립

제대군인 정책 패러다임 전환

제대군인 정책추진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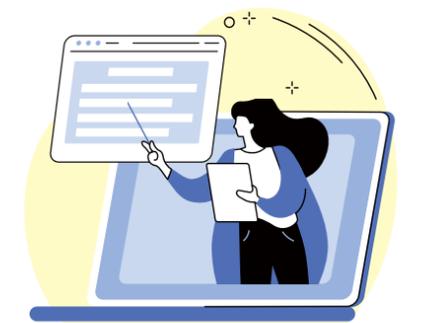
- 미래 보훈대상자 인구추이 변화에 따른 제대군인 정책 변화
- 제대군인 정책환경 반영, 장기 비전계획 수립
- 의무복무 청년 제대군인의 자긍심 고취, 사회적 우대제도 추진
- 범정부 제대군인정책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사회복귀 지원체제로 개편

- 20대 의무·단기복무: 사회적 우대제도 도입
- 30대 초반: 경력설계·진단, 역량강화 등 사회 조기정착 지원
- 30대 중반~40대: 취·창업 준비 기간 생계위험 없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 연금대상 중·장년층: 명예로운 제2의 인생 설계 지원

* 제대군인 지원체계 개편안

현행	지원 없음	낮은 수준 지원	높은 수준 지원 + 헌신에 대한 예우	
	단기복무	중기복무(5년 이상)	장기복무(10년 이상)	장기복무(20년 이상)
개편	연금 비대상			연금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복귀 지원			헌신에 대한 예우





제대군인 전직지원서비스 개선 및 취·창업 강화

제대군인 사회적 연결 사다리 공고화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및 지급기간 조정 필요성 강조
* 2025년 지급액: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강화, 우대지원제도 확대

제대군인지원 인프라 확충

- 전직지원시스템 2차 고도화로 지원센터 서비스 역량 강화
- 촘촘한 근접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센터 증설 추진
- 유관기관 취·창업 관련 시스템 연계로 민원 만족도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예우·문화 조성

제복군무자 등 국민을 지키는 분들을 국민과 함께 예우

- 제복군무자 감사캠페인 연중 운영, 공익광고 제작·송출
- 방송, SNS 등 연계 콘텐츠 개발·제작 홍보
- 국민 참여형 감사문화제로 사회적 공감 확산
* 제복군무자 감사캠페인 추진 체계

구분	전 국민	청소년, MZ세대	40~50대
홍보	[공익광고] 감동적 스토리 활용, 대상별 시리즈 형식 전방위적 송출	[유튜브 홍보콘텐츠] 위기에 처한 시민을 구한 제복군무자 미담사례 및 휴먼스토리 발굴 등 영상 콘텐츠 제작	[TV프로그램] 인기 TV프로그램 협찬으로 제복군무자 감사메시지를 전하는 특집 기획·편성
참여	월별 온·오프라인 참여 이벤트 개발, 운영으로 캠페인 확산 - 모바일 참여 콘텐츠, 순직군경소방관 자녀 장학금 기부, 도서벽지 군무자 감사·응원 이벤트 등		

제복군무자 통합의료지원체계 도입

-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추진방안 마련
- MIU 통합진료카드(가칭) 발급, 예약·결제 등 통합 서비스
- 관계부처 간 의료협력 강화를 위한 의료협의체 구축

2025년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지원

신청장소 / 기간

전국 국민은행·농협은행 영업지점 / 수시

신청대상자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부한도액 및 상환조건

대부종류	대부한도액	연이율	상환기간	담보조건
주택구입(신축)	4천~8천만 원	3.5%	20년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2천~5.2천만 원	3.5%	7년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아파트분양	4천~8천만 원	3.5%	20년	분양아파트
생활안정	3백만 원	3.5%	3년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연대보증
농토구입	3천만 원	3.5%	3년 거치 10년	구입농토
사업	2천만 원	4.5%	7년	부동산, 군인연금, 보증서
학자금	학기당 5백만 원	4.5%	5년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대부지원 제외자

-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분(학자금, 생활안정대부 제외)
* 단, 동일대부가 아닌 다른 종류의 대부는 가능
-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분양,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의 경우 현재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 학자금대부의 경우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는 타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 학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분

알아두면 유용한 2025년 정부 지원 예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률	중기복무제대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5%	월 55 → 58만원	월 77 → 81만원

청년 병사·예비군, 의무이행에 대한 합당한 대우

병장 봉급 인상	생활관 개선	신형 전투피복 도입	예비군 지원 확대
병장 봉급 165 → 205만원 (월 급여 150만원 + 자산형성 지원 55만원)	8~10인실 (공용 화장실·샤워실) ↓ 2~4인실 (단독 화장실·샤워실)	9종 공용피복 ↓ 4종 개인피복 (신규) (다기능성·경량 소재)	동미참 훈련참가비 4만원 (신규) 작계훈련 교통비 6천원 (신규)

군 간부, 주거 및 복무여건 개선

간부숙소	국민평형 관사	여군	군의원
1인 가구형 풀옵션 간부숙소 (불박이장,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전자레인지, TV 등)	도심·거점지역에 30평대 관사 (전용 85m ²)	여성 필수시설 확충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750개소)	응급진료보조비 신설 (신규) (월 최대 150만원)

취업준비생,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일경험	빈일자리 채용 패키지	
4.8 → 5.8만 명	5.8만 명 (훈련·취업수당 480.4만원 / 2년 근속 장려금 480만원 / 기술연수 3~6개월)	
재학 중 진로탐색	지역청년 취업·정착 패키지	해외진출
15 → 18만 명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50 → 60개교)	5개 지역 (신규) (지역기업 취업 + 주거비용 + 청년 네트워킹)	0.5 → 0.6만 명 (KOICA 해외봉사단, 항공료·생활비·체재비 지원)

고립을 깨고 취업하고 싶은 청년, 사회복귀 지원

미취업 졸업생	구직단념청년	고립·은둔 청년
6만 명 (신규) (채용박람회, 자격증 교육 등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신설 전국 120개 대학일자리센터)	0.9 → 1.2만 명 (구직의욕 고취, 취업역량 프로그램, 월 50만원 참여수당 지원)	1천 명 (온라인 발굴체계 마련, 정서·심리치료, 자조모임 등 사회복귀 지원)



퇴직을 앞둔 중장년, 재취업과 계속 고용 지원

중장년 내일패키지	폴리텍을 통한 직업훈련 강화	
6.1 → 6.5만 명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 (5개과) (신규) 뿌리산업 교육센터 신설 (3개소)	
중장년 내일센터	중장년 인턴제	정년도달 후 일자리 유지
35 → 38개소	910명 (신규) (월 150만원 수당 지급)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전원 재고용 → 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원) (신규)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최대 3년 지원)

경력단절 여성,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정규 채용
새일센터 직업훈련 및 참여수당 (신규) (최대 4개월간, 월 10만원)	인턴채용 지원금 (최대 3개월간, 월 80만원)	고용유지장려금 (기존 6개월 후, 140만원 + 신규 12개월 후, 80만원)

청년창업가, 글로벌 무대 도전 지원

해외 신규마켓 진출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글로벌협력 R&D
글로벌 대기업 협업 (컨설팅, 마케팅 등) &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한국형 스테이션-F (서울 흥대 인근, '25. 12월 개소) (신규)	글로벌 팁스 (3년간 최대 12억원) (신규) 글로벌 스케일업팁스 (3년간 최대 15억원)

귀농 청년, 영농정착 및 창업·주거 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임대주택단지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5,000명 (신규) (정착자금 100만원/월 (3년간))	10개소(300호) 추가 조성 (보육·문화시설 보유)	4개소 신규 조성 (40~80명 청년농이 최대 10년까지 임대)

다자녀 가구, 혜택 대폭 확대

전기차 구매보조금	K-패스 할인율
기본 300만원 + 2자녀+100만원, 3자녀+200만원, 4자녀+300만원	일반 20% +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LEE DONG KYUN

솔선수범·근성의 군인정신으로

인생 2막의 완벽한 문을 열다

한 사람을 특정 단어로 표현하는 건 무리겠지만, 그에게는 솔선수범과 근성이란 단어가 매우 적합할 듯하다. 34년의 군 생활을 끝내고 사회로 나온 그는 이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장착돼 있었다. 이를 통해 화려한 인생 2막의 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글 박선경 사진 권진혁

이동균
예비역 육군 원사



Lee Dong Kyun

어려움 속에서 자라난 강원도 소년의 꿈

강원도 영월에서 4남 2녀 중 맏이로 태어난 이동균 씨(59)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늘 꿈을 잃지 않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연탄과 자장면 배달을 하며 수업료를 마련해야 했고 또래보다 2년 늦게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누구보다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어려움은 이어졌지만, 강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근성으로 견뎠다.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987년 5월 군복을 입었다. 그의 나이 스물 두 살이었다. 군대는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되었다. 논산훈련소를 거쳐 1사단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은 그는 단체생활이 적성에 맞았고, 안정적인 삶에 매력을 느껴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던 시기, 부사관으로 지원해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다.



참군인의 모습, 그의 길을 따르는 동생과 아들

직업 군인이 된 그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병참부사관으로 보급 및 급양관리를 23년간 했다. 이어 교육연대 보급담당관, 군수지원대대 창고관리관, 입소대대 급양담당관, 포병연대 탄약관리관, 보병연대 급양관리관, 사단 회관 관리관 등 제9보병사단 및 1군단에서 11년간 주요 보직을 두루두루 맡았다. 조직에 헌신하는 군인정신과 어디서든 솔선수범하고 근면 성실한 삶의 자세는 그를 빛나게 했다.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해 육군 최초로 컵라면 용기 재활용을 시도하며 쓰레기 감소를 견인했고, 사비로 미역을 공수해 병사들의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는가 하면 한식·중식·양식 자격증에 추레라 면허증, 대형 면허증을 취득하며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 온 힘과 열정을 쏟았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자란 막냇동생 이철균 준위(40)와 아들 이준영 중사(34)는 큰형과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걷고 있다. 군인의 삶을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한 강력한 그의 추천도 한몫했다.

“막냇동생은 학창 시절 전교 회장을 도맡을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느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어떤 길로 갔어도 잘했겠지만, 군에서 중사 6년 차에 준위를 다는 등 두각을 나타내며 모범적으로 해 주고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군 생활 잘하고 있어 뿌듯합니다.”



(왼쪽부터) 총용대상 수상 후 나란히 선 이준영 중사(아들), 이동균 씨(코스탈 이사), 이철균 준위(동생)



이동균 예비역 육군 원사의 핵심 스토리

1

술선수법, 근성의
군인정신으로 도전한다.

2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간다.

3

내가 희생하면 다른 사람들이
편해질 수 있다.

4

'안 되면 되게 하라' 를
기억하고 길을 찾는다.

5

많은 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나온 인생, 두 권의 책에 일목요연하게 스크랩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삶은 '군에서 걸어온 길'과 '사회에서 전진으로'라는 두 권의 스크랩북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군에서 걸어온 길'에는 입대부터 전역까지 그의 34년 1개월 군 생활이 담겨 있다. 특히 2019년 아들과 같이 받은 육군 참모총장 표창을 비롯해 총용대상, 참군인상 등 각종 성과와 표창을 비롯해 그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 기사, 감사편지 등이 한 권으로 부족할 만큼 빼곡히 담겨 있다. 특히 19년간의 봉사로 받은 국방부장관 격려 서신은 영예롭기 그지없다. '사회에서 전진으로'에는 2021년 군 제대 후 회사에서 받은 각종 상과 사회에서 받은 표창 등이 담겨 있는데, 남아 있는 페이지를 담을 훗날의 이야기가 기대된다. 1990년부터 시작한 봉사 활동은 군 시절은 물론 제대 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생과 아들도 함께 한다. 지역을 위한 환경 봉사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강원도민회 활동 등 봉사 스케줄이 빼곡하다. 특히 강원

도민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며 2023년 강원도민회가 전국 최우수 도민회로 선정되게 한 일등 공신이다. 강원도지사도 표창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강원도민회는 고향을 떠나 고양시에 정착한 강원도민 500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2021년 사무실을 만들고 고향을 지키는 도민들과 힘을 합쳐 고향에 크고 작은 도움을 주며 강원사랑을 실천하고 고양사랑도 함께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의 꿈을 응원하는 코스탈에서 연 인생 2막

그는 제대가 가까울수록 사회에서 인생 2막을 제대로 열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지만, 그에게는 피처럼 흐르는 술선수법과 근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제대한 해 파주에 있는 코스탈에 바로 입사했다. 코스탈은 전기 및 전력용 비철금속 재료, 가공제품을 만들어 국내 300개, 해외 9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3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및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저력의 기업이다. 입사 당시 무직으로 들어온 그는 갑자기 그만둔 식당 직원들을 대신해 6개월간 7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하려고 왔나 싶은 비참함도 잠시, 많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를 지켜본 이재필 대표이사는 총무부장이라는 직책을 부여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겼다. 2023년 최우수 사원 선발에 이어 2024년 금상 수상을 하며 완벽하게 정착했다. 제대군인으로 매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귀감이 되어 다른

제대군인의 길을 열어주었고 현재 6명이 함께 하고 있다. 올해 8월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신규 공장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밤낮으로 업무에 매진한 결과 1월 2일부 관리이사로 초고속 승진한 그는 후배 군인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니 현재를 즐기고 최선을 다한다면 미래 또한 밝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의 시간을 아끼고 자기 계발에 투자한다면 밝은 미래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만들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얻는다면 그 시간이 최고의 자산으로 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 ☎



내 머릿속에 물음표는 언제든 느낌표로 바뀔 수 있다!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시기 공모전 우수상

송준석

예비역 육군 소령

‘따아~따! 따따따~’ 휴대폰에서 들리는 기상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부자리를 뺑 차고 2024년 7월 1일 아침을 맞이한다. 22년 11개월 동안 들었던 기상나팔 소리는 전역 후에도 친근하게 느껴지고, 오늘도 제2의 직장인 연구소에 출근하는 나의 모습이 자신감에 꽉 차 있다. 집에서 20여 분 거리의 연구소에 출근해서 오늘 진행될 R&D 기획파트, 특수사업파트, 장치개발파트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한다. 군 시절 항상 7시 30분까지 출근하는 버릇이 있어서 9시에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연구소에서는 항상 1시간 30여 분의 여유시간이 나에게 조용히 차 한잔 마시며 업무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업무 시작 10여 분 전부터 부산하게 연구원들이 달리기 끝인 지점에 도착하듯 사무실을 들어온다.

“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쉬셨어요?”

다 같이 인사하며 눈도장을 찍는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전직 지원 기간 동안 연구소 현장 연수 인원으로 직급 없이 근무했던 내 지금은 10여 명의 연구원과 함께 국방 R&D 사업 총괄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3년 1월 31일부로 대한민국 육군 소령으로 전역해서 1년여 만에 초고속 승진을 했다. 아침부터 각 파트장으로부터 보고가 물밀듯 들어온다.

“부장님! 오늘 SG社에 활성탄 소재 납품하겠습니다.”,

“부장님! 지난주에 조달청에 접수한 ○○살균소독기 물품 등록 완료되었습니다.”,

“부장님! 어제까지 장치 화학 성능 테스트 결과 합격 기준치 통과하였습니다.”

등등 그간 함께 기획하고, 개발해 왔던 제품들이 하나같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들이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대전 대덕특구에 위치한 화학공정 소재(흡착제, 촉매제)와 국방 전력지원체계 장치를 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이다. 화학 관련 여러 업체 중의 하나로 기업연구소까지 갖추고 있다.

대학 전공과 군사 특기의 ‘?’가 ‘!’로

나는 고향인 대구에서 화학공학 전공으로 대학교를 다녔고,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ROTC 사관후보생과정을 수료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대학교 전공 탓으로 군 특기도 화생방병과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학교 전공과 화생방장교로서의 업무는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대학생 시절 분석화학, 공업화학, 물리화학 전공 과목의 이론수업과 실험을 해왔다면, 군에서는 위관 시절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하고 제독기와 제독차를 운용하면서 가상의 오염지역에서 제독작전과 정찰작전을 직접 수행하였다.

영관장교가 되기 전까지는 ‘대학교 전공과 군 특기가 맞지 않는다’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지만, 그래도 외면상으로는 화학공학 전공에 화생방특기로 제대로 군에 맞게 왔다고 나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주어진 직책과 업무에 수적천석(水滴穿石)의 자세로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노력한 덕

분에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꼭 해보고 싶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해외파병을 나가서 UN군 화생방장교로 이탈리아군들과 화학작용제 및 제독제 분석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또한, 군사령부에 근무하면서 미군들과 연합 WMD(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을 수행하면서 독성화학물질 생산, 저장, 관리, 무기화되는 과정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분석과 작전부대 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성과로 정부 국무총리 표창과 다수의 장성급 및 기관 표창을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옛 대학교 시절 화학공학을 전공했어야지만 가능한 업무가 아닌가. 새삼 위관시절 머릿속에 떠올랐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2011년 3월 1일 영관장교로 진급하고 나서는 군 업무의 난이도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그에 발맞춰 나의 업무처리능력 또한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했다. 피라미드 구조의 계급사회인 만큼 주변 동료들과의 경쟁심도 초고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처럼 올라가기 시작했다. 쉴 틈 없이 달려온 거 같다. 2022년 6월, 전역이 1년도 남지 않은 어느 날 나는 집앞 산에 올라서 그동안 달려온 22년 군 생활을 눈 감고 회상하였다. 험준한 산줄기가 뺨뺨하게 있는 강원도 화천에서의 첫 군 생활을 시작으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해외 중동 레바논 등 안 기본 곳이 오히려 있는지 머릿속에서 대한민국 지도를 펼쳐 보는 듯 생각에 잠겼다. 그때 휴대폰 벨 소리에 눈을 뜨고 화면 창에 낯익은 번호를 보면서 통화버튼을 눌렀다. 4년 전쯤 대전 소재 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할 때 모셨던 과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반가웠고, 그간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휴대폰을 두 손 모아 받기까지 하였다.

과장님은 33년 성공적인 군 생활을 마치고 현재 국가 연구기관에서 연구기획 업무를 총괄하고 계셨다. 과장님은 안부 인사는 짧게 끊으시고 바로 본론부터 말씀하셨다. 꼭 무슨 경주를 하시는 듯 급하게 말씀을 이어가셨다. 말씀인즉, 대전

대덕특구 기업연구소에서 화학공학 전공에 군 화생방장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장교 출신을 모집하고 있으니 한번 지원해 보라는 것이었다. 또한, 주변에 몇몇 인원들에게만 물어보는 것이고, 마땅한 인원이 없으면 그 기업연구소에서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이셨다.

전직지원기간이라 현장연수인원으로 지원이 가능한 터였고, 또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분석화학과 공업화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서 과장님 말씀이 귀에 솔깃하게 들려왔다. 나는 과장님께 좋은 취업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알려주신 서류를 챙겨 3일 뒤에 인원을 모집한다는 대덕특구 기업연구소를 찾아갔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바로 그 연구소이다.

1층 현관을 출입해서 연구소장님을 찾아뵙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며 이력서를 내밀었다. 연구소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내 머릿속에 물음표가 수없이 나타났다. 화학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한 지가 22년이 지난 터라 지금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는데, 머리 깊숙이 꼭꼭 숨어있는 전공 지식을 끄집어내기 위해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아보았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이력서를 다 보신 연구소장님께서 첫 말문을 여시면서 화학작용제 성분 및 위험성, 군 화생방장비 제원과 운용 방법, 제독제 성분과 성능 효과에 대해 설명을 해보라고 하셨다. 군 생활하면서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자세로 화학작용제를 분석하고, 매일같이 다뤘던 제독 장비와 안전에 유의하며 취급했던 제독제는 내 신체의 일부인 양 꿰뚫고 있는 것들이었다. 내 머릿속에 느낌표가 나타났다. 한 시간 정도 아무런 문서 없이 입에서 줄줄 물줄기가 하염없이 흐르듯 쉽 없이 설명했다. 마무리할 때쯤 살짝 목이 마르기도 할 찰나에 연구소장님께서 자신의 허벅지를 탁 치시면서 “송 소령! 정말 잘 왔네. 자네가 우리 연구프로젝트에 꼭 참여해야 할 인원인데. 내일부터 꼭 출근하게. 우리 서로 잘해보세.”

나는 연구소장님께 여쭙보았다. 현장연수 인원으로 합격한 것인지. 연구소장님께서도 현장 연수뿐만 아니라 전역일에 맞춰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계속해서 근무할 것을 재차 언급하셨다. 이것이 연구소 면접시험이었고, 뉴스에서 여느 대기업의 면접시험 난이도가 높아서 합격률이 저조하다는 기사와는 다르게 나는 한 번에 합격하였다. 그간 군 생활 경험과 연구했던 것을 한 시간 동안 설명한 것이 오히려 짧게 느껴졌을 정도였다. 연구소장님의 배웅 인사를 뒤로하고 내일 정식 출근을 위해 집으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창문 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내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어 잠시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 또다시 느낌표가 떠올랐다. 22년 군 생활의 경력과 치열한 경쟁 세계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모든 일이 전역하면서 나의 제2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다.

R&D 사업 총괄부장으로 제2의 인생 시작

2022년 7월 1일부 연구소에 첫 출근을 시작했다. 군에서 타 부대로 전출 가면 꼭 하는 것처럼 업무 파악을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숨 쉬는 소리와 여러 연구 문건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소리 빼고는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2개월 동안 탐독하고 난 뒤, 연구개발계획서(PPT) 3건을 한 달 만에 작성해서 연구소장님과 여러 선임연구원, 그리고 우리 회사의 수장이신 대표님을 모신 자리에서 4시간에 걸쳐 브리핑했다. 영관장교 시절 사단장님께 지휘관 업무보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다. 브리핑이 끝나고, 수 초간 정적이 흘렀다. ‘보고 내용이 부실해서 모두 할 말을 잃은 건가? 아니면 연구소의 R&D 컨셉과 맞지 않은 건가? 회사 출근하고 결국 3개월 만에 그만뒀야 하는 건가?’ 숨소리만 들리는 그 수 초의 시간 동안 내 머릿속엔 수많은 물음표가 생기면서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다. 그때 그 적막을 깨는 대표님의 한 말씀이 들렸다.

“송 소령! 연구소장에게 간단히 송 소령에 대해서 들었지만, 오늘 연구개발계획서를 듣고 나니 확신이 드네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꿈꿔오고 추진해 보고 싶었던 프로젝트가 개발계획서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듣고 있는 내가 떨리고 손에 땀이 날 정도네요. 대표인 저는 연구개발계획서대로 진행할 것을 승인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대표님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연구소장님을 포함하여 참석한 모든 분이 박수로 긍정의 신호를 보내주었다. 내 머릿속에 또다시 큰 느낌표가 나타났다. 군 경험에 연구소의 핵심기술을 접목시켜 보고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연구소의 R&D 컨셉은 물론 대표님의 연구개발 목표와 딱 맞아들어간 것이다. 너무나도 기뻐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졌다. 다음 날부터 쉴 틈 없이 국방 R&D 사업에 매진했다. 회사 입사 후 2년이 지난 지금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 R&D 응용연구과제인 피부보호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다음 단계인 2025년 시험개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군 보호장비인 방독면 정화통과 전차 및 함정 여과장치에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활성탄을 충전하여 성능시험에 통과하였고, 해



외수출용 민수방독면 정화통에도 국산화 개발한 활성탄을 충전하여 실작용제 시험에 통과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 방산업체에 납품하게 된다. 또한, 화학공장과 반도체 공정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이동식 유독가스 정화 장치를 6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국산화 개발한 흡착제를 충전하여 성능인증을 받았고, 국내 삼성반도체 공정과 해외 반도체 공정에 2023년 11월부터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현장 연수 기간일 때 기획했던 군용 개인 전투장비물자 살균소독장비를 1년 8개월 동안 군의 요구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세밀히 분석하고 수차례 설계변경과 성능시험을 통해 2024년 6월 말부로 개발에 성공했다. 내달이면 조달청에 우수조달제품 등록 수순을 밟게 되고, 육군본부 소요심의 확정 시 2025년부터 시범 운용을 시작으로 납품이 진행될 것이다.

물음표에서 출발해 느낌표로 마침

제2의 직장에서 나는 이제 성공이라는 수천 고지 되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나처럼 20년 넘는 군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준비해 온 제대군인들이 많을 것이다. 그 시작에서는 군과 다른 사회라는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나 자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의 장벽에 직면할 것이다. 나 역시 육군 소령으로 전역할 때쯤 나이는 만 45세였다. 한참 일을 할 시기이기도 하고,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이기에 쉰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그럴 때 내가 극복한 방법은 지금까지 걸어온 내 길을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그동안 지내온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머릿속에 물음표와 느낌표는 모두 나 자신이 해 놓은 일들의 성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창 시절, 장기간 군 생활, 이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제

2의 직장과 연결될 것이다. 새롭게 하는 것이 좋다고들 말한다. 그래서 전혀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중도 포기하고 또 다른 것을 찾기도 한다. 나 자신이 걸어 온 길, 장기간 군경력은 과거 학창 시절과 미래 제2의 직장을 연결해 주는 오작교이다. 분명히 군경력이 제2의 직장을 찾는 데 도움될 것이다. 젊은 20대 해맑은 청년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여 40대 중년의 나이가 되기까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걸어 온 군인으로서의 길은 그 어느 것보다 값진 것이다.

여기서부터 제2의 직장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 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여러 정보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 또한 그랬듯이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까마득히 잊은 대학 전공과목을 다시 공부하였고, 여러 취업 일자리 소식을 참고하면서 나의 대학전공과 군 특기에 맞는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해 왔다. ‘그 노력의 기다림이 언제 종결될까?’하는 물음표에서 지금의 느낌표 같은 나의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나는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걷고 있는 나의 길에 항상 이정표처럼 수 없이 되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제2의 직장에서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머릿속에 두려움, 걱정, 물음표는 결국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느낌표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긍정의 생각과 자세로 또다시 내일을 시작해 본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



방향성을 설정하라!

글 정지하(룩말) 작가



Q 안녕하세요. 저는 군에 있을 때는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계획적인 사람이었지만, 사회에 나온 이후에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지만, 작심삼일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계획을 잘 세우고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11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5년 전 퇴사를 했고, 지금은 시간 관리를 돕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니까요. 간호사에서 시간관리 전문가로 꺾직한 커리어 전환을 한 셈입니다. 5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릅니다. 하는 일의 종류, 만나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해 <리:스펙 제대군인> 독자분들께서도 커리어의 전환을 앞두고 계시거나, 인생의 꺾직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과정에 있으시겠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저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것을 잠시 멈추세요. 방향성을 미세하게 조정해 가며 성과가 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월은 방향성을 찾아보기에 더 없이 좋은 달이지요.

1단계 5년 후의 세상과 나 상상하기

지금의 내가 5년 전의 나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저는 과거의 나에게 '경제적으로 더 넉넉해지고 싶니? 시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거야! 엔비디아 주식을 사! 가능한 많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5년 후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지금의 시점에서 '내년에 뭐하지?' 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5년 후의 세상과 나를 상상해 보세요. 저는 주로 영상 콘텐츠로 시간관리 방법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미래를 상상해 보았어요.

5년 후 세상과 나의 모습을 상상하기

5년 후 세상
시가 더 발전해서 세계 각국 언어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라이브로 소통 가능하다.

5년 후 나의 모습
해외 사람들에게도 시간 관리를 알려주고, 소통하며 돕는다.

5년 후의 내가 나에게 하는 조언

“시간관리 강의에 주로 쓰이는 내용부터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공부해 줘”

“주요 언어로 자막을 넣어서 영상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 봐”

그 흔한 '영어 공부하기'와는 다르지요? 자신의 '목적'에 맞는 행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년 후를 상상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에 더 효율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5년 후는 어떤가요?



2단계 목표 전략 세우기

1단계에서 정한 방향성을 더욱 명확화하는 단계입니다. 목표는 도착지점을, 전략은 도착지점에 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만큼 할지를 정하세요. 명확한 목표와 전략은 고민할 시간을 줄여, 행동력을 높여줍니다.

목표
무엇을? 시간관리 영어 채널 개설해서
언제까지? 올해 안에
얼마만큼? 구독자 1만 달성하기

전략
무엇을? 영어 콘텐츠
언제? 1주에
얼마만큼? 1개 업로드하기
수요일 스크립트, 영어로 말하는 연습
목요일 촬영하기
금요일 편집 및 업로드

3단계 주간 계획표에 넣기

목표가 현실이 되도록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전략이 나의 복잡한 일상에 들어와서 안착할 수 있는지를 가능해 보세요. 아래의 주간계획표를 봐주세요. 하루를 6블록으로 나누었습니다. 오전 2개, 오후 2개, 저녁 2개이지요. 그것이 7일, 총 42개의 블록입니다. 먼저 정해진 일정을 넣습니다. 회사, 대학원 수업, 아르바이트 등이지요. 빈칸이 얼마나 보이나요? 빈칸에 내가 목표했던 것을 넣어봅니다. 가용시간이 적을수록, 하고 싶은 게 많을수록 타임블록이 모자랄 거예요. 그럴 때 칸을 더 쪼개려고 하지 않고, 한정된 칸 안에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 보세요.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모여 추진력을 받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모닝루틴	모닝루틴	모닝루틴	모닝루틴	모닝루틴	꿀잠	꿀잠
2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가족	이동
3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운동	결혼식
4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넷플릭스	결혼식
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가족	휴식
6	독서	운동	스크립트	촬영	편집	가족	넷플릭스

플러스 실천을 위한 팁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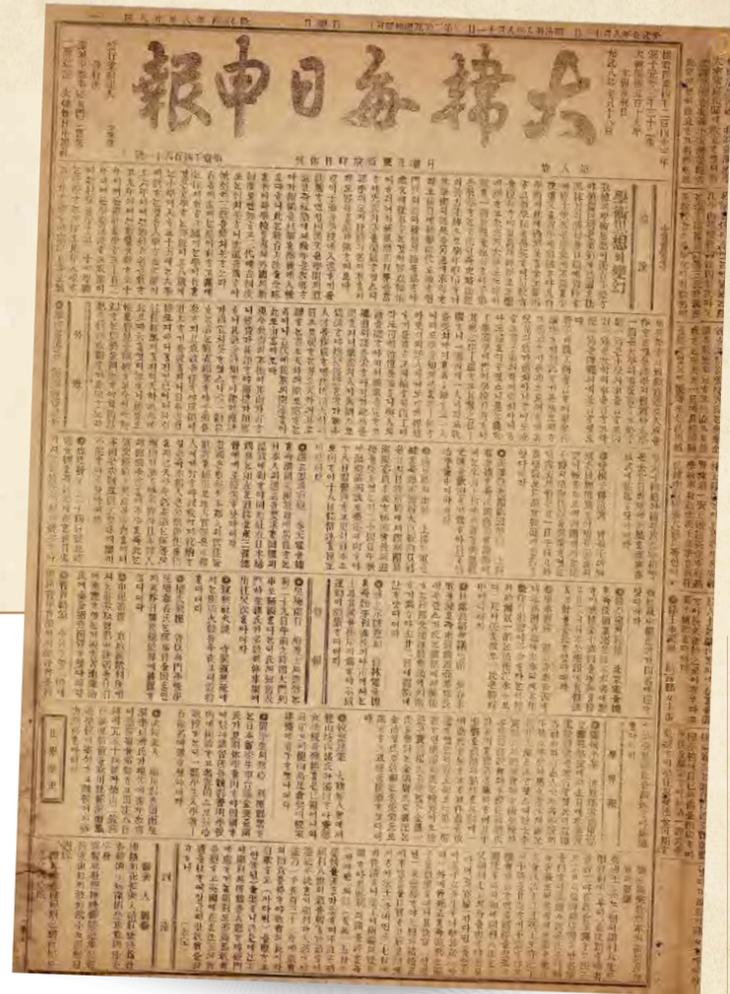
- 자!** 이제 2025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2025년을 위해 실천력을 높이는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보이는 곳에 적고 자주 보기** 계획한 걸 못 지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자주 보세요. 핸드폰 배경화면, 화장실 유리, 침대 옆, 책상 앞 어디든 좋습니다.
 - 자꾸 어기게 된다면,** 시간대의 변화를 주세요. 계획은 나에게 맞게 수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가 반복된다면, 편안한 시간대를 찾아 보세요.
 - 플랜 B를 만드세요.** 바빠서, 피곤해서 하지 못하게 될 때에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아주 작은 행동을 미리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독서 1시간 하기가 어려울 때는, '어제 읽은 부분 떠올려 보기!'라고 정해두는 거죠. 멈추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2025년,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며 성장하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글쓴이 소개

- [시간을 선택하는 기술, 블랙박스] 저자
- 유튜브 [시간관리는 룩말이와 함께] 운영
- EBS 귀하신 몸 <도파민 중독> 편 시간관리 전문가 패널 출연, 배민아카데미, 삼성화재 기업/기관 다수 강의 등

대한매일신보와 베델 선생

역사와 보물지식
기출문제로 보는
한국사 31년 권정음시험



제55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6번 문항



Q. (가)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여기는 양기탁과 함께 (가)을/를 창간하여 항일 언론 활동을 전개한 베델의 묘입니다.
그는 “나는 죽지만, (가)은/는 영원히 살려 한국 동포를 구하시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 ① 최초로 상업 광고를 실었다.
 - ② 천도교의 기관지로 발행되었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다.
 - ④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 ⑤ 일장기를 삭제한 손기정 사진을 게재하였다.

[정답] ④번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기자 베델이 창간과 운영에 참여하여 일제의 검열과 탄압을 비교적 덜 받는 신문이었기에, 효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입니다. 이와 관련한 역사 지식을 한번 살펴 볼까요?

일본의 사전검열을 피한 유일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는 일제강점기 시기인 1904년부터 1910년까지 발행된 독립운동 성향의 신문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양기탁이 영국 언론인 어니스트 베델과 함께 창간한 신문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와 불평등 조약에 반대한 강한 비판과 애국 계몽을 주요 사안으로 다뤘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유 중 하나는 일제의 검열을 피해 언론의 자유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양기탁과 베델은 일본 당국의 언론 통제에도 불구하고 한글과 한문, 영어로 기사를 게재해 민중에게 사실을 알리고 독립의 의지를 고취했습니다. 또한, 이 신문은 광범위한 독자층을 형성했으며, 경제적 자립을 위해 민간의 기부금을 모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일제가 강제로 신문을 폐간하고 그 명칭을 ‘매일신보’로 바꾸며 친일 성향의 내용만을 다루게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특히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하고, 대한자강회를 비롯한 여러 항일단체와 연계하여 항일 사상을 퍼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기사와 사설을 통해 일본의 경제적 침탈을 강력히 비판하며 한국인의 자주성과 애국심을 고취했습니다. 영국인이었던 베델이 대표로 나서 일본 당국의 압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일본은 끝내 베델을 법정에 세우고 강제 추방하는 등 신문을 억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독립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했으며, 오늘날까지도 항일 언론의 상징으로 기억됩니다.

항일 언론 활동을 펼친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베델

어니스트 베델(Ernest Thomas Bethell, 1872~1909)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헌신한 영국 언론인으로, 한국 언론사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1904년 러일전쟁 중 한국에 입국하여 일본의 조선 침탈 실상을 알게 되었고, 이를 비판하고자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습니다. 베델은 신문을 통해 일제의 부당한 식민 통치를 고발하고 한국의 자주성을 적극 옹호하며, 민중에게 독립 의식을 고취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한국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과 한문으로 발행되었고, 일본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영문판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베델의 이러한 활동은 일제의 불만을 샀고, 일본은 그를 법정에 세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베델은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1909년 37세의 나이로 요절했지만, 그의 항일 정신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베델은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로 불리며, 한국 독립의 동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㉞





콘텐츠를
읽어 주는
이야기꾼

전기수

&

변사와 성우



종이 위 글자로 존재하던 이야기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주 오래 전부터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존재한다. 전기수에서 변사를 지나 성우에 이르기까지 콘텐츠를 읽어주는 사람,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가치를 지녔다.



연극을 하듯 생생한 소설의 낭독자, 전기수

JTBC 토일 드라마 <옥씨부인전>을 보다보면 송서인(추영우 분)이라는 인물이 전기수 천승희로 활약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전기수(傳奇叟 ·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노인)는 조선 후기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 고전소설을 낭독해 주는 일을 했다. 단순한 낭독의 개념을 넘어 문장에 가락을 붙여 마치 1인극을 하듯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말투를 실감나게 흥내를 냈는데, 다음 편의 이야기를 손꼽아 기다릴 만큼 인기 만점이었다.

<옥씨부인전>에 등장하는 천승희 역시 팬을 몰고 다닐 만큼 인기 있는 전기수로, 그의 이야기는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눈물을 썩 뺄 만큼 흥미진진해서 옥씨 부인으로 등장하는 구덕이 옥태영(임지연 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한 표현이 아주 적절한 입담꾼이다.

실제로 조선 후기 민간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문집 <추재집(秋齋集)>에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소설을 읽어주며 돈을 버는 사람의 기록이 나온다.

“전기수는 동대문 밖에 살았다. 언과패설(諛課稗說 · 민담)인 속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등과 같은 전기(傳記)를 구송(口誦)하는데 고저장단이 있어 얼핏 들으면 창(唱) 같기도 하다. 매달 초하루는 제일교 아래, 초이틀은 제이교 아래, 초사흘은 이현에, 초나흘은 교동 입구에, 초닷새는 대사동 입구에, 초엿새는 종각 앞에 앉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초이레부터는 도로 내려온다. 이처럼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다시 아래로 옮겨 한 달을 마친다. 다음 달에도 또 그렇게 한다.

책을 잘 읽기 때문에 구경하는 이들이 겹겹이 둘러싼다. 그는 읽다가 가장 간절하여 매우 들을 만한 대목에 이르면 문득 조용히 소리를 내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회(下回)를 듣고자 다투어 돈을 던진다. 이것을 일컬어 요전법(邀錢法)이라 한다. 간혹 어떤 아녀자는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리니 영웅의 승패를 칼로도 나누기 어려워라. 재미있는 대목에선 말문을 딱 멈추면 듣고 싶은 게 인정이니 그 방법 묘하기도 하더라.”

그런데,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의 역사는 이보다 오래됐다. 신라 원성왕 때 도적들에게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려주어서 모두 자신의 제자로 삼은 승려 영재의 일화도 그런 흔적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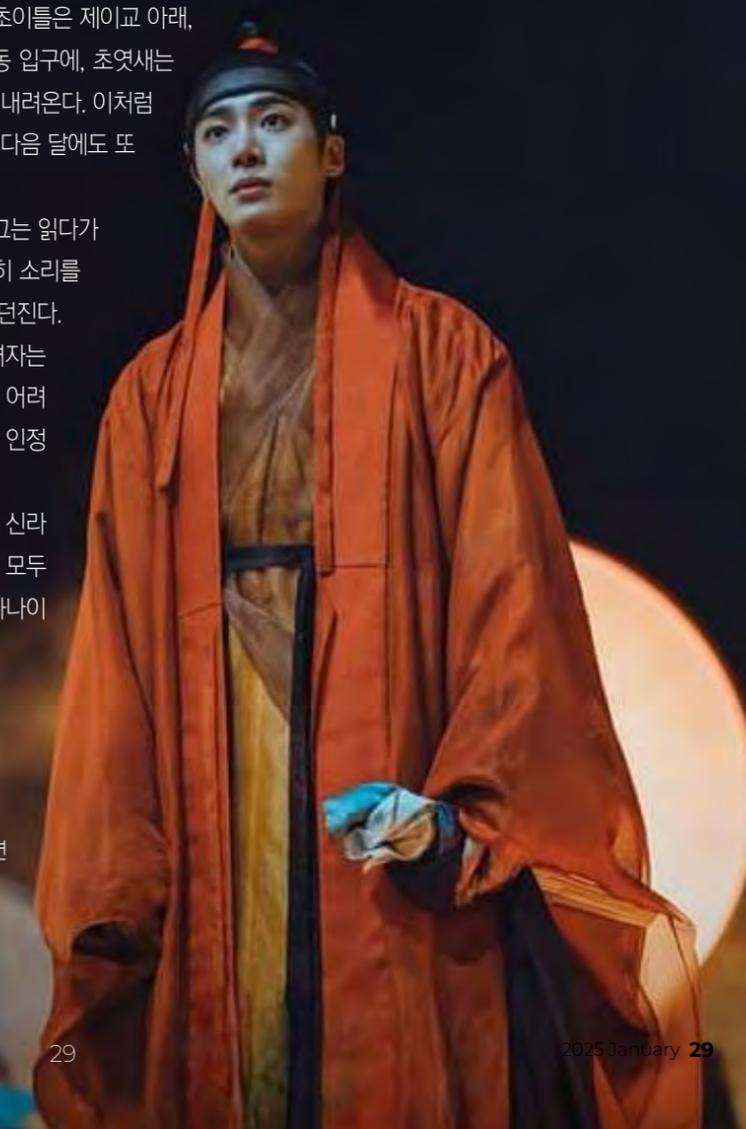


사진 출처 : JTBC 토일 드라마 <옥씨부인전> 한 장면



사진: 배우보다 몸값 높았던 당시 인기 변사들

출처: KMDb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무성 영화의 시대를 주름잡은 스타, 변사

_____ 구한말을 지나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전기수의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책이 대량으로 인쇄되고, 문맹률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기수의 후예가 탄생했다. 바로 극장에서 영화 대사를 들려주는 변사의 등장이다. 낯선 외국 영화에 코믹한 대사를 덧입히며 들려준 변사들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극장에서 신작 영화를 홍보할 때 영화 자체보다는 어떤 변사가 해설을 해 주는지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성영화 시대의 흥행 성적은 오로지 변사의 입담에 좌우됐다고 할 정도로 변사는 스타 중의 스타였다. 당시 일류 배우가 40~50원을 받고 고급 관리들의 월급이 30~40원이었는데 변사는 70~80원의 월급을 받았다고 하니 배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된다. 참고로 쌀값이 가마당 15원, 설렁탕 한 그릇이 15전, 양복 한 벌에 영국제가 45~55원이었다. 변사가 전성기를 구가한 무성영화 시기 단성사의 주임변사 서상호, 조선극장의 김조성, 우미관의 이병조가 3대 변사로 꼽혔고, 우정식·서상필·김덕경·성동호 등도 이름을 날렸다.

이렇게 하늘 높이 치솟던 변사의 인기는 1930년대 중반, 배우가 직접 대사를 들려주는 유성영화가 등장하면서 시들해졌다. 변사가 몰락한 이후에도 전기수의 후예는 1960년대까지 근근이 활동을 이어갔다. 지방의 장터를 다니면서 책을 팔던 장사꾼들이 바로 그들인데 책의 내용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들려줬던 것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한때 외면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사진: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의 장면

런트로 잇달아 변신했다. 또 <육백만불의 사나이>의 양지운, <형사 가제트>의 배한성, <달려라 하니>의 주희, <겨울 왕국> 엘사와 안나인 소연과 박지윤, <명탐정 코난>의 강수진 등 목소리만으로도 영화와 만화의 한 장면으로 옮겨 놓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더빙이 자막으로 바뀌는 시기가 찾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상파 방송사들의 더빙 영화 제작이 거의 전무해졌고 영화 자막을 택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성우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콘텐츠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유튜브, 오디오북, 게임 등으로 성우들의 활약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오디오북은 말 그대로 듣는 책이어서 성우는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목소리에 의존해 책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데, 정확한 발음과 듣기 좋은 발성은 필수 사항이고 문장을 이해하며 글의 표면적인 뜻과 이면의 의미까지도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에 목소리로 연기하는 성우들에게 아직은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성우, 어떻게 되나요?

_____ 성우가 되려면 재능과 열정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 성우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KBS, 투니버스, 대원방송, 대교어린이TV 등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국에서 실시하는 공개모집(공채)에 합격해야 전문 성우로 진출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연령, 학력,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

시험은 방송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차는 지원서(음성 파일 포함) 제출 후 2차 실기 시험과 면접이 진행된다. 주어진 대본의 실제 연기와 내레이션을 즉석에서 해야 한다. 최근에는 만화 더빙으로 시험을 본다. 역대 공채 시험 문제들을 보면서 직접 녹음하고 시도해 보며 어떤 캐릭터든 빠르게 이해하고 연기로 표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뒀다면 유리할 것이다.

그렇기에 성우 지망생 중에는 성우 교육을 받기 위해 방송연예과, 연극영화과 등 방송 또는 연기관련 학과에 진학하거나 성우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기본적인 연기 기술, 발성법, 호흡법 등 성우지망생에게 필요한 기초를 쌓을 수 있으며 전문가인 교수에게 고급 연기 기술을 밀도 있게 배우고 네트워킹을 쌓는 데도 큰 장점이 있다. 성우 학원의 경우 성우에 관심 있거나 성우 공채 준비가 목적인 사람들이 주로 다니기 때문에 성우 연기 기술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우 관련 정보와 공채 정보를 빠르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성우 임금 수준 및 직업 만족도



평균 연봉
3,678만원

직업 만족도
73.0%

<자료: 워크넷, 성우(2021)>

성우에 대해 더 살펴보고 싶다면?
성우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는 큐넷 직업백과를 참고하세요.



라디오드라마부터 오디오북까지, 성우

_____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목받으며 등장한 새로운 직업, 성우이다. 외화 더빙부터 만화 영화, 라디오드라마, 광고 스팟, 다큐멘터리, 홈쇼핑 내레이션, 내비게이션 녹음, 게임, 팟캐스트, 오디오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 성우의 역사는 19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내 최초 라디오가 시험 방송을 시작하면서 조선극우회 소속 복혜숙 씨가 처음으로 시험멘트 방송을 했고, 이후 성우협회 초대 고문으로 '성우의 어머니'라 불리기도 했다. 1927년 경성방송이 본 방송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라디오드라마가 전파를 탔고, 1946년 본격 연속방송극 <똥똥이의 모험>이 방송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54년 KBS 성우 1기 모집과 함께 성우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라디오드라마 <인생역마차>(1954)를 시작으로 최초의 라디오 멜로 연속극 <청실홍실>(1956)과 라디오 흥 드라마 <로맨스 뽀빠>(1958)를 거치며 자리를 잡는다. 이어 1960~70년대 라디오 전성기를 맞아 미스터리극,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 수많은 작품이 등장했고, 1965년부터 1983년까지 방송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메가 히트작도 나왔다. 나문희, 김영옥 등 실력파 성우들이 인기를 타고 TV로 옮겨가면서 얼굴 없는 성우들이 인기 텔

2025년, 주목해야 할 IT 트렌드 3가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우리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이럴 때일수록 신중한 판단과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5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알아보자. 핵심 키워드는 여전히 인공지능(AI)이다. 2025년 역시도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날 것 같다. AI와 관련된 놓치지 말아야 할 3가지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자.

1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

2025년 인공지능은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자.

AI 에이전트 AI Agent

에이전트는 기업의 업무 자동화를 의미한다. 2024년 10월, 앤트로픽은 'Computer Use' 기능을 발표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5년 초, OpenAI의 '오퍼레이터(Operator)'와 MS의 AI 에이전트가 공개될 예정이다. 제대로 자리 잡을 경우 회사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은 쉽게 자동화되고, 관리자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된다.

AI 컴패니언(AI Companion)

AI 컴패니언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의미한다. 2024년 5월, OpenAI는 고급 음성 및 영상 통화 모드를 공개했다. 진짜 친구처럼 현실세계를 바라보며 인공지능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기능은 10여 년 전의 영화 'her'를 생각나게 했다. 게다가 2024년 12월에는 유료 사용자들은 이 기능을 쓸 수 있고, 구글 역시도 실험버전이라는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공개했다.

AI 웹 검색(AI Web Search)

인공지능 활용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인 '환각(Hallucination)'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퍼플렉시티는 처음부터 웹 검색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AI 답변의 근거를 명확하게 만들었다. 오픈AI의 '서치 GPT(Search GPT)' 역시 동일한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은 구글 검색 시장을 압박하게 된다. 구글의 대응도 AI였다. 크롬 검색 시 제미나이로 요약해주는 기능을 추가해 대응하고 있다.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읽고, 보고, 경험하며, 생각하는 기본기를 놓치지 말자. 둘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을 듣다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생각만하지 말고 직접 바로 해보자. 이 두 가지를 습관으로 가져가게 되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시작해보자. ☎

글 이임복

현) 세컨드브레인연구소 대표, 인터렉티브북스 대표, 한국경제인협회 MWC 모더레이터,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유튜브 일상 IT 운영자

AI 빌더(AI Builder)

마지막으로 GPT 제작 기능에 관심을 가지자. 누구나 자신만의 챗봇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2025년에는 더 커질 예정이다. OpenAI의 GPTs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유료 버전에서는 직접 만들 수 있다. 구글의 제미나이도 '젬(Gem)'이라는 기능을 통해 비슷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0년 앱스토어가 개발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열었던 것을 생각해보자. 그때와 같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이때는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2 다시 돌아온 메타버스

GPT와의 실시간 화상 통화는 재밌고 놀랍지만 여전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디바이스가 바로 스마트 글래스다. 2024년 메타(META)는 '오리온(Orion)'이라는 디바이스를 발표했고, 구글 역시 XR 시대를 선언했다. 2025년 초, 삼성은 새로운 VR 헤드셋과 스마트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실과 가상 세계가 실시간으로 융합되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있다.

3 휴머노이드의 진화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은 듣고, 생각하고, 보고, 말하게 됐다. 여기에 '육체'가 더해지면 어떨까. 2024년 공개된 피규어 2(Figure 2)는 GPT를 탑재하여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Optimus)와 아마존의 디짓(Digit)도 본격적인 활용 준비에 나섰다.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뉴아틀라스를 통해 자동차 공장에 로봇을 도입할 준비를 끝냈다. 2025년 우리는 현장에서 더 많은 로봇을 보게 될 예정이다.

새해의 빛을 품은
동해의 끝자락,

포항

글 박선경

멋진 일출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포항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행지로 손꼽힌다.
한반도의 동쪽 끝에 자리한 호미곶과 구룡포에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뜻깊게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

호랑이 꼬리에서 만나는
찬란한 일출

호미곶은 호랑이 모양의 한반도 지형에서 꼬리 부분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상징성과 함께 다채로운 풍경을 제공한다.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만들면서 이곳을 일곱 번이나 답사하고 측량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고 전해진다. 또한, 조선 명종 시절의 풍수지리학자인 격암 남사고는 호미곶을 우리나라 지형상 호랑이 꼬리에 해당한다고 기술하며 이를 천하제일의 명당이라 하였다. 호미곶은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해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어 일출 명소로 유명해 매년 새해가 되면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해맞이 광장으로 모여든다.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해맞이 광장에 들어서면 정면 끝에 거대한 손 모양의 조각상이 눈에 들어온다. 육지와 바다에 각각 자리한 두 개의 손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나타내며, 이곳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Ayeongbuk Pohang

사진 출처 : 포항시



Re new 뜻있는 여정

구룡포 일본의 기록거리

호미곶에서 구룡포로 이어지는 역사와 미식의 여정

이른 새벽,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한 해의 시작을 축복하는 듯한 장엄함을 선사한다. 해돋이를 본 후에는 호미곶 등대박물관을 방문하여 등대의 역사와 함께 한국의 항해 문화를 엿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도 좋다. 일출의 감동을 마음껏 마주했다면, 이제 발걸음을 옮겨 구룡포로 향해보자. 호미곶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에 자리한 구룡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가옥 거리로 유명하다. 잘 보존된 일본식 건축물들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구룡포 근대 문화역사관에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구룡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은 단연코 과메기이다. 과메기는 겨울철 구룡포를 대표하는 별미로 이 지역의 특산물 중 하나다. 원래 공치를 얼렸다 녹이는 과정을 반복하며 만들어졌던 과메기는 현재 청어도 만들어지며, 구룡포의 청정한 해풍과 한겨울의 추위를 그대로 품고 있다.

호미곶 해안데크로드



구룡포항 전경

과메기 덕장 손질



입안에서 은은하게 번지는 바다의 향기

특히 구룡포에서 생산되는 과메기는 신선한 원료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져 그 맛과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식당들이 준비해 있는 거리를 따라 가다보면 과메기 거리에 접어들게 된다. 이곳에서는 과메기뿐만 아니라, 대게와 회 등 다양한 요리도 함께 맛볼 수 있다. 과메기의 진정한 맛을 즐기기 위해서는 곁들여 먹는 반찬들이 필수다. 과메기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생미역과 김은 겨울철에 제철을 맞아 신선한 맛을 더해줄 뿐 아니라, 과메기의 강한 향을 부드럽게 완화시켜준다. 입안 가득 바다의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과메기의 맛을 한층 더 풍부하게 느끼게 한다.

생파, 생마늘, 청양고추 등을 곁들여 배추, 상추, 깻잎 같은 쌈채소에 싸서 먹는 것도 추천한다. 과메기의 기름진 맛은 한결 덜하고,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건강한 식사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오감으로 기억될 겨울의 한 장면

과메기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구룡포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자연 환경을 담고 있는 문화적 산물이다. 겨울철 구룡포를 방문한다면, 과메기의 깊은 풍미와 구룡포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함께 즐기길 추천한다. 겨울 바다의 낭만과 맛있는 음식이 어우러지는 경험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데 완벽한 조건을 제공한다. 한편, 포항은 해병대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 행사로도 유명하다. 매년 봄에 열리는 포항 해병대문화 축제는 해병대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며 군사적 자부심을 표현하는 행사이다. 해병대의 훈련과 전투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해병대의 상징적인 행진과 퍼포먼스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포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한다. 65



해병대문화축제 행사



구룡포 식당가

- ① 호미곶 해맞이 광장: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 ② 구룡포 공영주차장: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954-7

제대군인의 꿈과 미래를 여는 국가기술자격 A to Z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드는

국가기술자격

국민의 직업능력 강화를 위해 1975년 시작된 국가기술자격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서 548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시행하고 있다. 제2의 인생 설계가 필요한 제대군인들의 미래를 여는 데도 큰 힘을 발휘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현황과 트렌드를 살펴본다.

글 박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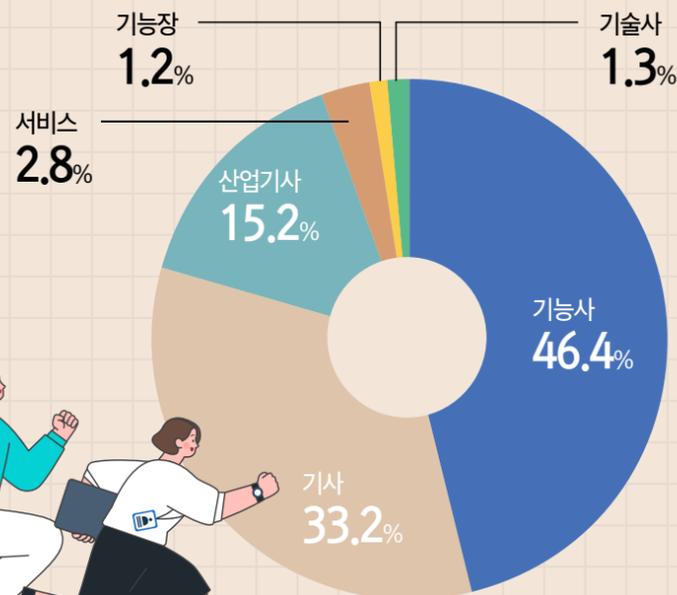


2023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수

245만 1,618명
(2022년 대비 12.9% 증가)

2023년 등급별 응시 인원

(필기시험 기준)



<출처: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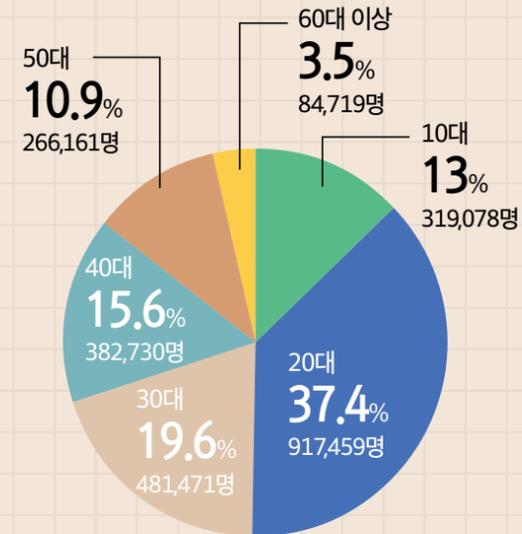


국가기술자격을 살피면 미래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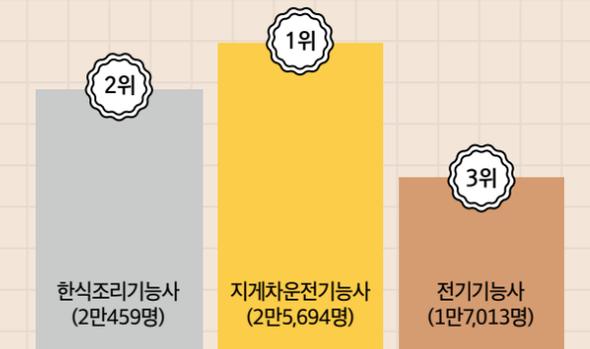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인원과 자격증 취득 목적, 응시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종목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자리 트렌드를 알아보자.



연령별 응시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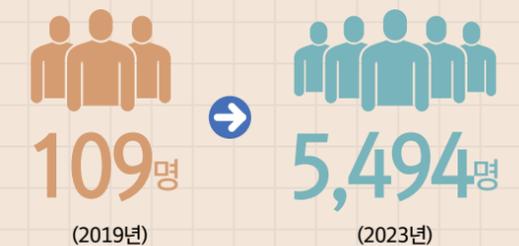


최다 응시 국가기술자격



5년간 응시인원 최다 증가 국가기술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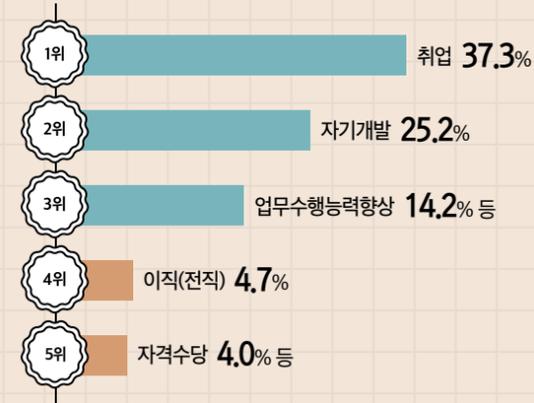
I 인간공학기사



인간공학기사는? 국내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 작업자의 신체 질환을 예방하고자 제정됐다. 작업방법, 작업도구,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작업장을 개선한다.

<출처: 2024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



국가기술자격통계를 더 살펴보고 싶다면?

큐넷(q-net.or.kr) → 자료실 → 각종서식 → "2024년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검색)에서 수험자 기초통계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자격증 도전으로
새 문을 여는 2025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올해 진행할 국가기술자격 및 주요 자격 일정이 발표돼 수험생들도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자격증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보장하는
경력 개발의 중요한 길이기 때문이다.
국가기술자격 주요 시험 일정과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일정을 살펴보자.

2025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험은 전문자격인 변리사 시험이다. 올해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1차 원서접수를 시작해 2월 15일 시험을 진행한다. 3월 19일 합격자 발표 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7월 18~19일 양일간 2차 시험을 치른다.

관세사 시험은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차 원서 접수 후, 시험은 3월 15일에 치러진다. 합격자 발표 후 2차 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10월 15일 발표된다. 감정평가사 시험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차 원서 접수 후 4월 5일 1차 시험과 7월 12일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10월 22일 발표한다.

세무사 시험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사 시험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주택관리사 시험은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은 8월 4일부터 8일까지 1차 원서접수를 받는다.

1월 11일에는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진행된다. 이 자격증은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센터 등의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고령화 사회가 가속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 시 사회복지 시설의 관리자나 행정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1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제1회 전기기능사 및 위험물기능사 필기시험이 치러진다. 전기기능사는 전기 관련 재해를 예방하고 전기기기의 제작, 조작, 보수 등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기업에서 고졸 전기직 채용 시 선호하는 자격증이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도 1월 20일 5급 행정과 5급 과학기술, 외
교관후보자 시험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9급 2월 3일, 7급 5월 12일 원서 접수를 시
행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의 자세한 내용과 원서 접수는 큐넷(www.q-net.or.kr)에서, 국가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상세 일정과 원서 접수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
터(www.gosikr)에서 하면 된다.



국가기술자격, 부담되는 비용?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주목!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지원해 준다. 지원한도는 연간 3회에 한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큐넷(www.q-net.or.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큐넷 로그인 후 원서접수 시 응시료 지원 받 을 시험 선택 후 결제하면 된다.

무료 국비 지원으로 해결!

자격증 공부를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나 라에서는 개인의 재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국비지원무료교육인 국민내 일배움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 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직업 훈련 을 희망하는 국민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 업훈련포털인 HRD-Net(www.hrd.go.kr)에 가입, 로그 인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면 간편하게 완료 된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지원 가능한 수 업과 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2025년 국가기술자격 정기검정 시험 일정



기사·산업기사 필기시험 일정

	1회	2회	3회
원서 접수	1. 13.(월)~1. 16.(목)	4. 14.(월)~4. 17.(목)	7. 21.(월)~7. 24.(목)
시험 시행	2. 7.(금)~3. 4.(화)	5. 10.(토)~5. 30.(금)	8. 9.(토)~9. 1.(월)
합격자 발표	3. 12.(수)	6. 11.(수)	9. 10.(수)

기능사 필기시험 일정

	1회	2회	3회	4회
원서 접수	1. 6.(월)~1. 9.(목)	3. 17.(월)~3. 21.(금)	6. 9.(월)~6. 12.(목)	8. 25.(월)~8. 28.(목)
시험 시행	1. 21.(화)~1. 25.(토)	4. 5.(토)~4. 10.(목)	6. 28.(토)~7. 3.(목)	9. 20.(토)~9. 25.(목)
합격자 발표	2. 6.(목)	4. 16.(수)	7. 16.(수)	10. 15.(수)

2025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시험명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5급(과학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 선발시험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1. 20.(월)~1. 24.(금)	1. 20.(월)~1. 24.(금)	1. 20.(월)~1. 24.(금)	5. 12.(월)~5. 16.(금)	2. 3.(월)~2. 7.(금)

새로운 희망을 꿈꿀 때 책 속에서 답 찾기

나의 몸과 마음을 성장시킬 책



슬데없는 걱정으로 준비된 체력이 소진되었습니다

이광민 | 웅진지식하우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인 저자는 비교의 기준을 다양하게 가질 것을 제안한다. 예쁜 골프복을 입은 친구가 부럽다면, 골프 외에도 직업, 인간관계, 자존감, 건강 등 다른 기준으로 시선을 넓혀보면 박탈감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상 속 크고 작은 외로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한 권의 위로와 희망을 추천한다.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

로버트 월딩거, 마크 솔츠 | 비즈니스북스

세계 최장 프로젝트인 허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밝힌다. 프로젝트의 네 번째 책임자인 저자는 풍부한 사례와 과학적 연구 성과를 통해 행복이 삶에 작동하는 방식을 알려준다. 외로우나 함께이고 싶고, 고통스러우나 아프고 싶지 않으며, 손닿는 곳에 좋은 인생이 있음을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윈터 씨의 해빙기

슈테판 쿨만 | 달로와

과묵한 주인공 로버트 윈터가 주변 사람을 돌아보며 점차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그려낸 소설이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아내를 잃은 뒤, 엄청난 상실감과 충격에 빠져 사람들에게 벽을 쌓고 스스로 고립을 선택한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 속에서 변화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 사이의 희망과 연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달에 한 가지, 지구 사랑 실천_저탄소 식생활

생산부터 포장, 가공, 운송, 조리, 식탁에 오른 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는 과정까지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최소화한 식품을 위주로 섭취하는 식생활을 의미한다. 탄소배출이 많은 붉은 고기, 가공육 등을 지양하고, 채소와 과일 등의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단을 추천한다. 특히 푸드 마일리지(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거리)가 짧고, 신선한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이용한다면 금상첨화다.



독자퀴즈

QUIZ

국가보훈부는 2024년 병역의무 이행 사회적 존중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했다. 다음 중 잘못된 설명은?

- ①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한 의무복무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②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했다.
- ③ 제대군인확인서 원스톱 온라인 민원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 ④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지원은 국가보훈부 단독으로 이뤄진다.

※ 1월 22일(수)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라: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2024년 12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구귀본(대구 동구), 김도균(경기 파주)
배진철(경기 의정부), 양진성(대전 서구)
임종재(서울 영등포)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12월호 정답: ①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025년
1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

두매리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용맹한 영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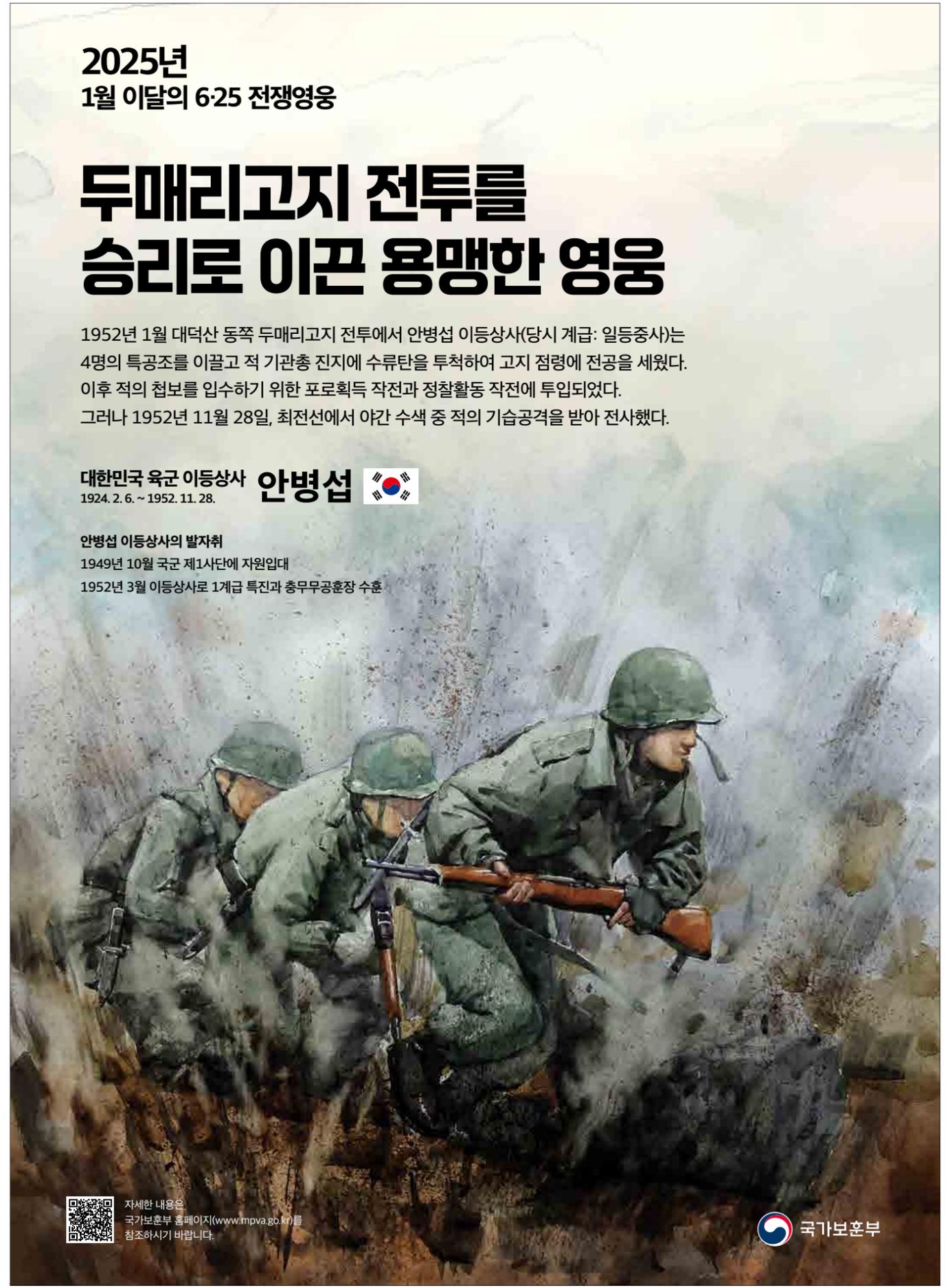
1952년 1월 대덕산 동쪽 두매리고지 전투에서 안병섭 이등상사(당시 계급: 일등중사)는 4명의 특공조를 이끌고 적 기관총 진지에 수류탄을 투척하여 고지 점령에 전공을 세웠다. 이후 적의 첩보를 입수하기 위한 포로획득 작전과 정찰활동 작전에 투입되었다. 그러나 1952년 11월 28일, 최전선에서 야간 수색 중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사했다.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 **안병섭** 
1924. 2. 6. ~ 1952. 11. 28.

안병섭 이등상사의 발자취

1949년 10월 국군 제1사단에 자원입대

1952년 3월 이등상사로 1계급 특진과 총무무공훈장 수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